

박찬일의 '밥 먹고 합시다'



깃발과 응원봉

대통령의 폭거에 시민들이 나선 전국의 집회장 풍경이 화제다. 과거의 직능, 운동단체 깃발보다 개인의 재치 있는 작품들이 사람들을 웃기고 따뜻하게 만들었다. 전국 집에서 누워있는 사람들의 모임, 고양이를 사랑하는 모임, 라면 한변에 두 개 먹기 모임... 물론 실제 하지 않는 모임이다. 엄중한 시국이지만 때로는 유머로 대응하는 변화하는 시민정신의 한 단면이다. 나는 '전국 막걸리 웃국만 마시는 모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sns에 밝혔다가 친구들에게 엄청 '까였'다. 막걸리 근본도 모른다느니, 탁주는 탁해야 진짜라느니, 돈 많아서 그러느냐느니 하는 농담성 지탄이었다. 참고로, 웃국이란 막걸리를 가라앉혀 맑은 부분만 따라 먹는 것이다. 나는 해남의 양조장에서 처음 마셔본 후 습관이 되었다. 물론 나중에는 가라앉은 탁주도 다 마셔버리지만.

탄핵 투표를 포기한 의원에게 적극적으로 강력한 항의를 주도한 것도 세 세대이고, 대학생들의 결의도 대단했다. 젊은 세대가 탈정치적이라는 우려를 해운 기성세대들이 깜짝 놀랄 일이었다. 우리가 그들을 제대로 보고 있었던 걸까. 그런 반성의 밑말이 한국 사회를 채웠다. 방식이 달랐을 뿐이었다. 학업과 힘든 취업에 지친 절망하던 세대의 붓물 터진 호소가 집회를 매웠다. 물론 그들 젊은 세대들도 집회장에서는 '올드한' 어묵탕 국물을 좋아했지만 말이다.

내가 특별히 감동받은 건, 이른바 선결제 미담이다. 시민들이 카페와 식당 등에 돈을 미리 결제하고 시위하는 누구나 필요하면 그 음식을 요청해 먹는 문화다. 이것이 아직은 문화라고 부르기에 단발적인 사건이지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연대감과 따뜻한 정서에서 나온 새 문화가 될 것이라 본다.

사실, 이런 부조 문화는 우리에게 존재했다. 군인이거나 청년들이 밥을 먹는 식당에서 누군가 미리 밥값을 내고 간다던가, 결식하는 아이들을 위해 식당에서 무료로 밥을 낸다던가 하는. 나도 젊어서 언젠가 어떤 어른들에게 음식을 얻어먹은 기억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경험도 다 옛날 '좋았던 시절'의 한 자락 미담이라 치부했었다. 이제는 그걸 옛날 이야기로 보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쓸쓸하게도 탄핵정국이 가져다 준 민족 정서의 재발견이다. 어찌 되었거나 너무도 감사하고 울컥한 감동의 릴레이다. 이번 주에도 선결제는 이어지고 있다. 더운 커피 한 잔 마시고, 한두 잔 값을 미리 내는 행렬이 이어진다. 이 추위에도 뜨거운 마음 덕에 속이 훈훈하다. 아, 대한민국이여.

이탈리아에는 예전부터 '카페 소스페사(caffe sospesa)'라는 시민 덕성이 있다. 커피점에서 커피를 마신 시민이 누군가를 위해 한두 잔 분의 요금을 같이 내는 거다. 즉, 선결제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커피값이 없는 가난한 이에게 자격이 있다. 작은 자선은 사회의 느슨해진 감정들을 일깨우고, 울이 풀린 연대감을 다시 깊게 만든다. 커다란 돈과 정부의 시책이 아니라 이런 시민의 자발적 정신이 더 크게 작동한다. 부자도 아닌, 그저 주머니가 딱딱한 서민이 그 선결제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더 눈물겹고 정한 파동이 가슴을 친다.

올 겨울, 이 온도가 높은 선함을 대하고 있지만 곧 사태가 끝나더라도 한 시민문화로 남았으면 한다. 아직 우리 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도 많다. 다시 오늘도 집회장으로 시민들이 모인다.

<음식 칼럼니스트>

社說

'내란 수사' 윤 대통령 압수색 이어 체포 시사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수사 기관들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내란 수괴' 혐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일주일만에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구속되면서 윤 대통령을 향한 '내란 수괴' 혐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윤 대통령 체포를 시사하는 등 수사 기관마다 내란 수사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하는 위헌적 내용이 담겼는데, 검찰은 이를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상의해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11일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잠 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합참 청사 등이 대상이다. 윤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 균형법상 반란 등으로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오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1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국회 질의에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관들이 의욕적으로 수사에 나서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 3개 수사기관들은 수사 방향과 범위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내란 관련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尹 상대 '위자료 집단소송' 들불처럼 번지길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에게 공포와 불안, 수치심을 안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국민들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은 그제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광주 9명, 서울 24명 등 105명의 원고는 전국 지원자가 윤대 선별했는데 지난 7일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05명에 맞선다는 의미를 담았다.

변호인단은 국민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이 반헌법적 내란 행위로 국민들에게 오히려 공포와 불안, 수치심을 안겼다고 집단 소송 배경을 밝혔다. 정부가 아닌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은 비상계엄의 고의성이 강하다는 정치·경제·외교 등 사

회 전 분야에 미치는 손실과 이미지 추락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1차 집단 소송 원고 모집이 1시간 만에 마감됐다는 것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민사소송을 넘어 시민 불복종 운동의 하나라는데 의미가 있다. 내란죄 수괴에겐 헌법상, 형법상 책임은 물론 민사상 책임을 물어 경제적 손실을 안겨야 한다. 아울러 그 수괴가 현직 대통령이라면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친위 쿠데타로 골목상권 등 내수시장 위축은 물론 주식과 환율 등 금융시장의 불안, 유학생과 해외 여행객이 입은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만 하더라도 상상하기 힘들 정도다.

변호인단은 추가 소송 참가자들을 모아 2차 집단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국의 모든 법원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들불처럼 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無等鼓

전시회를 다녀와서 내 결의 '물건들'에 눈길을 주게 됐다.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하찮다고 여겼던 것들에 대한 작가의 애정어린 시선을 접한 덕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고 있는 구본창 사진작가의 '사물의 초상'전은 다시 관람하고 싶은 전시다. '청하 백자' 시리즈가 가장 좋았는데 백자, 쪽두, 탈, 금관 연작 등 흥미로운 작품이 많다.

'사물'에 대한 생각은 한강 작가의 '소장품 기증 행사'에서 한 번 더 하게 됐다. 노벨상 수상자들은 개개인에게 의미 있는 물건을 노벨박물관에 기증하는 전통이 있는데, 한 작가는 집필할 때의 일상이 담긴 작은 것들을 전달했다. '작별하지 않는다'를 쓰는 동안 오전 5시30분에 일어나 글을 쓰고, 집 근처 해변을 하루 한번 걷는 루틴을 지키려 했던 그는 차를 마시며 "그렇게 하루에 예닐곱번, 이 작은 잔의 푸르스름한 안쪽을 들여다보는 일이 당시 내 생활의 중심이었다"고 적었다.

한강과 구본창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형 선고를 받고 각색의 '비누' 연작과 한 때는 물건이 담겼을 빈 상자의 흔적을 찍은 '오브제' 연작은 "인간과 사물이 얽혀서 역사를 만든다"는 말을 좋아하는 그의 가치관을 잘 보여준다. 전시 관람 전 포스터에 실린 '붉은 컵'의 존재가 궁금했다. 유명 작가의 대규모 전시를 알리는 메인 포스터에 담긴 작품이라면 뭔가 '대단한 것'이라는 선입견은 전시장에서 단번에 깨졌다. 함께 전시된 그 '컵'의 실물을 접하면, 사물을 대하는 작가의 시선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된다.

수감됐던 당시 이회호 여사가 보낸 손편지와 탈신, 쇠수북 등을 기증했었다. 구 작가는 "굉장히 외롭거나 쓸쓸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내 작품을 보고 위로를 받는 듯 하다"고 말했는데, 어쩌면 많은 이들이 작가의 따스한 시선으로 생명을 얻은 사물들에 자신을 감정이입했을지도 모른다. 당시 곁에는 어떤 물건이 있었나요? 그 물건은 당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건네나요? 한번쯤 귀 기울여 들어볼 일이다. /김미은 여론매체부장 mekim@

의료칼럼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한 '금연'



최유리 전남금연지원센터장 화순전남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새해가 다가오면 많은 흡연자가 금연을 다짐하곤 한다. 하지만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은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 단순한 의지로 끊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담배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800만 명의 사망을 초래하며, 한국에서도 담배로 인한 질병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담배에는 69종의 발암물질과 40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흡연은 폐암, 후두암과 같은 암질 환뿐 아니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등 심각한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금연을 시도한 사람 중에 자기 의지만으로 성공하는 비율은 약 5%에 불과하다. 이에 전문적인 금연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의 현재 흡연율은 20.2%이며, 17개 시도 중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고령인구 비율이

26.1%로 전국 평균(19.0%)보다 7.1%p나 높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전남도는 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 정책이 절실하다. 금연은 고령인구의 질병 예방과 수명 연장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의 금연 정책을 이끌어 가는 기관이 바로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내 전남금연지원센터다. 2015년에 개소한 센터는 전남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금연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흡연으로 인한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전남금연지원센터는 금연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금연 지원을 제공한다. 저소득층, 청소년, 근로자 등 금연을 실천하기 어려운 계층을 위해 생활터 중심의 찾아가는 금연서비스를 운영하며, 2023년 기준 52곳의 기관 방문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센터는 앞으로도 신규 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서비스 제공의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또 병원 입원 중인 흡연자들에게는 금연을 결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입원환자 금연지원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특히 최근 순천의료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다양한 입원환자들에게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의 주요 서비스는 단순한 상담에 그치지 않는다. 니코틴 의존도를 평가하고 개별 맞춤형 상담과 약물 치료를 병행한다. 금연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신체

적·심리적 금단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이러한 노력은 금연 성공률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7000여 명의 도민이 전남금연지원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이 중 30% 이상이 6개월 금연에 성공했다.

또한 전남금연지원센터는 전라남도청과 시·군·구 보건소, 광주전남지역약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 기관과 연계 협력을 도모하며 금연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 같은 협력은 금연 캠페인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도민에게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금연은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크다.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와 간접비용은 국가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금연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 이익을 가져다준다. 전남금연지원센터는 이러한 건강 정책의 중심에서 금연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전남금연지원센터는 지역 사회와 협력해 더욱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연을 원하는 도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금연 성공률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전남금연지원센터는 금연을 결심한 사람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으로 자리하며, 건강한 전남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전남경제 회복 기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2981건으로 높은 폐업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부채의 상당 부분이 제2금융권을 통해 조달되고 있어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등 우리 지역 자영업은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

문제는 자영업의 한계 상황이 경영 포기과 일자리 창출 여력을 악화시켜 인구 유출의 가속화뿐만 아니라 인구 유출은 다시 총소비 규모 감소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점에 있다.

자영업이 20%도 되지 않은 시도에서조차 지역화폐를 발행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주민의 실소득을 끌어 올림과 동시에 지역 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자영업을 살리고 지역의 전통 경제를 보존하기 위함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남의 지역화폐 발행액은 2019년 1108억 원에서 2020년 10배가 넘는 1조 1000억 원으로 증가, 2021년 1조 3966억 원, 2022년 1조 6907억 원으로 3년 연속 1조 원을 넘겨 증가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의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사용 제한'과 국비 예산삭감 등의 영향으로 2023년 발행액은 1조 2205억 원으로 줄었다. 2024년에도 1조 원이 넘는 발행계획을 세웠지만 정부의 보조율 하락, 가맹점 제한 정책으로 지역민들의 지역화폐 구매 실적이 떨어짐에 따라 상반기 발행률은 56%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고물가, 고금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기 회복을 위해서라도 지역화폐 발행을 활성화

·다양화해야 한다. 그동안 전남도가 22개 시·군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한 것 중 직접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는 시·군, 타 시도는 나름의 방법으로 브랜드화를 도모한 결과 강원도의 '강원사랑상품권', 경남의 '경남e지사랑상품권' 등 이미 지역화폐의 경쟁력을 넓혀가고 있다.

전남의 소득·소비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내에서의 소비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온라인 소비가 생활화된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춰 납도장터 등 온라인 플랫폼과 공공배달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지역화폐를 도입해 도내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견인해야 한다.

또한 전남의 성공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해서는 도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소비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지역화폐의 사용 범위를 넓히고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역 축제 등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을 관광상품, 공공배달앱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 단체장의 적극적인 의지가 절실하다. 정부의 예산지원 중단으로 어려움이 큰 상황이지만 22개 시·군과 전남도가 지역화폐의 발행과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성공적인 운영은 소득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등 자영업자와 도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 지역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고



차영수 전남도의회 의원

정부의 예산지원 중단으로 지역화폐 발행에 어려움이 커졌다. 지난 8월 내년도 예산안 발표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각 지자체는 지역화폐를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등 한계상황으로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안타까운 상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한다면 지역사랑상품권의 확대가 꼭 필요하다.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 후 자영업에 많이 뛰어들고 있지만 경영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폐업이 증가하는 등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 8월 28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광주·전남지역 자영업 경영 여건·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일 자리 부족과 맞물려 자영업으로 진입하면서 코로나19 전후로 2019년 28만명에서 2023년 30만 8000명으로 10% 증가하면서 자영업 비율은 전체 취업자의 30.2%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전남의 자영업자 부채는 2019년 말 15조 2000억 원에서 2023년 24조 원으로 58.3% 증가했고 폐업공제금 수령 건수는 1384건에서 115.4% 증가한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김汝松 | 편집인 崔宰豪 | 논설실장 蔡熙鍾 | 편집국장 崔權一 | 제작국장 柳漢洙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직권) (구독 신청 배달 안내) |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원국 220-0515 |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 문화부 220-0624 | FAX 222-8005 |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 예향부 220-0692 | 기획관리국 227-9600 |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 여론매체부 220-0661 | (FAX 222-0195) |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 사진부 220-0693 | 디자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 디지털부 220-0697 |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